

〈담배 문제에 대하여〉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담배를 핀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솔직히 ‘피지 않는게 나아. 미래 네 아이를 위해서도’ 라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말한데도 그엔 들을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미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애도 이제 성인이고 그애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신의 일은 자기가 결정해야 하잖아요. 처음엔 걱정으로 피선 안돼,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담배에 대한 결론은 제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누가 담배를 피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담배는 정말로 몸에 해롭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건강상식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물론 담배는 가능한 피지 않는게 좋다 입니다만 어차피 피는 이가 있다면 적어도 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문 내용의 ‘회사랑레스토랑, 버스랑전차 등 공공의 장소에선 담배를 필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는 부분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문 중에 ‘담배 광고 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므로 TV에서 방송 할수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담배 광고란 건 담배를 잘 팔기 위한 것이므로 흡연을 유도시켜야 하 겠 죠. 그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느냐 피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므로 광고를 방송해선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